

2 0 1 3

WINTER

Vol. 33

세계 초우량 기업들

COVER STORY 06

DREAM SECTION 30

향해가까 100인의

CHALLENGE SECTION 42

PASSION SECTION 50

원익인이 함께하는 사보

LIFE STORY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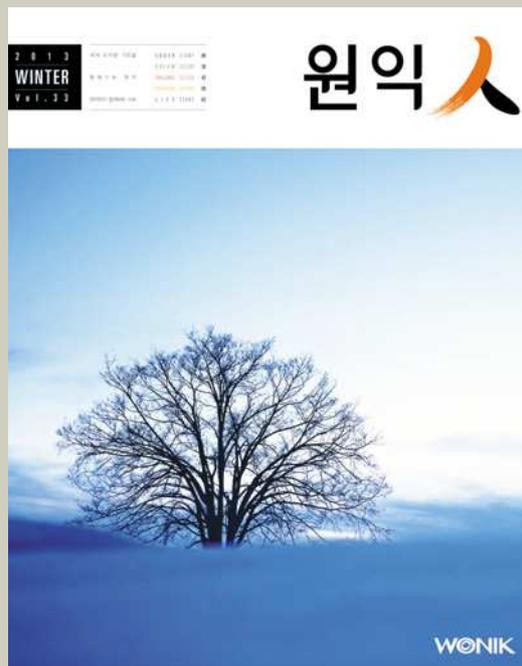
원익인



謹賀
新年

원익 가족 모두의 가정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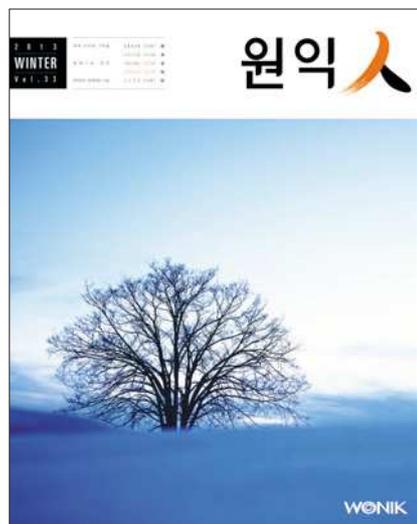


COVER STORY	06
회장님 신년사	
COVER STORY	08
대표이사 신년사	
WONIK NEWS	16
원익 계열사 소식	
COVER STORY	24
2013년 원익시무식 및 임원 청계산 등반	

CONTENTS

COVER STORY

Cover Story	06
회장님 신년사	
Cover Story	08
대표이사 신년사	
Wonik News	16
원익 계열사 소식	
Cover Story	24
2013년 원익시무식 및 임원 청계산 등반	



원익사보 2013년 겨울호 원익인 통권 33호

발행인 조용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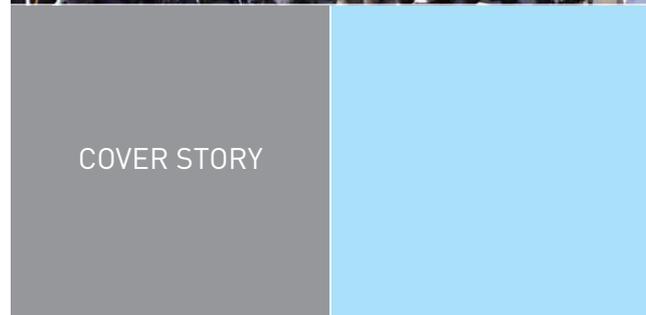
발행일 2013년 1월

발행처 원익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2.517.1901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3층

사보 '원익인'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D R E A M

Discovery of Baduk 제8기 원익배 십단전 본선 경기 진행	30
Wonik Dream Team (주)원익큐엔씨 세정사업부 김영수 부장과 직원들	32
Talk Box 2013년 원익인의 새희망	36

C H A L L E N G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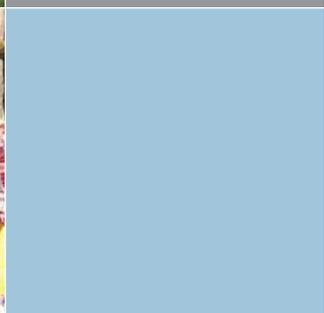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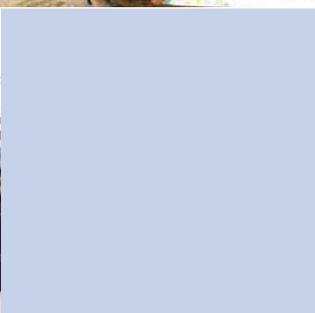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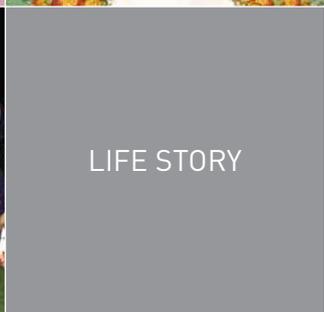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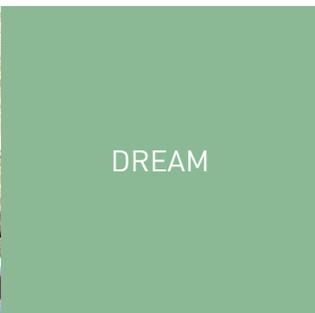
WONIK Core Value 자유·소통·행복 <신뢰·공정·투명>에서 <자유·소통·행복>으로 원익 핵심가치 바로 알기	42
Never Ending Change 일본 MK택시 친절로 일등 기업이 된 MK 택시 이야기	46

P A S S I O N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원익아이피에스 한마음봉사단 평택 북부 복지센터 급식봉사	50
Zoom In (주)원익아이피에스 축구동호회 WID FC (Wonik IPS Drea n Football Club)	54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원익머트리얼즈 한우리봉사단 에버그린 어르신과 함께한 제주도 동행 이야기	58

L I F E S T O R Y

Economic Report 2013년 경제전망 2013년 경제의 화두는 환율전쟁	62
Concert 겨울 풍경과 만나는 클래식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64
Exhibition 팀버튼展 팀 버튼이 창조한 新世界, 팀 버튼 전	65
Health 수면건강-수면빛 감기 내 건강을 위한 건강한 수면 상식	66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돌이켜 보면 2012년은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힘들었던 것이 사실 입니다. 우리 원익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문화에서 아직 변화의 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한 면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노력해 온 공정, 투명의 틀 속에서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공정, 투명의 기본가치조차 흔들리는 것을 여기저기서 보았습니다.

초 일류기업을 지향하고 세계 일류기업만이 살아남는 현실에서 어떻게 2류, 3류 문화, 기술을 가지고 냉정한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존,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 원익은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예상되는 불경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장"을 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기업문화는 생존과 미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틀이며 기본입니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공정, 투명의 가치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소통하며, 열정과 행복이 있는 회사로 만듭시다.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회사, 원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업문화, 기업가치를 가슴 깊이 공유하고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2013년 경제는 2012년 보다 무척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도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환경이라고 해서 절대 위축되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서 기본에 충실하며 자산 및 자금의 유동화에 노력하고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며 미래투자, 인재투자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다같이 힘을 모아 기업문화를 발전 시키고, 원익이 자유와 열정이 숨쉬는 직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다시 한번, 원익 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2일

원익회장 이용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3년 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흑계사년으로 검은 뱀의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동물인 만큼 새해에는 임직원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렸듯이, 올 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위기는 정말 위기지만, 이미 알고 있는 위기를 맞는 것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한 해 지금의 위기를 미리 내다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에 이미 최고의 위기를 최고의 호황으로 바꾸었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역량을 집중하여, 2013년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경영방침과 각 분야 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영방침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첫째, 위기에 강한 경영 체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한 의사결정과 Risk Management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제적 위기관리를 통하여 Bounce back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만 중장기적인 우리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Total Solution이 가능한 R&D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는 고객사의 Bottle Neck 이슈에 대한 Solution을 선행하여 제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R&D Infra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

과 열정으로 앞서가는 Solution을 제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셋째,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한가지는 항상 Rule & System을 준수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경쟁사를 능가하는 장비의 완성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넷째, 사내·외 교류확대를 통한 시너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내부적인 교류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Bench Marking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각 분야 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반도체 사업은 능동적 기술 Solution 제안을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수동적인 자세로 활력을 잃게 되면, 기술개발에 대한 Momentum 또한 잃게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외시장 및 신규공정에 진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 변환기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은 그 간 노력해 온 Project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그로 인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양산 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5.5G/8G Dry Etcher에 있어서도 제품 성능을 높여, 지속적인 수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SOLAR 사업은 지난 해 준비한 Ion Implanter에 대한 제품 완성도를 높여 시장에 반드시 진입하여야 하고, TSP 부분에 있어서는 올 해 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TGS 사업은 2012년에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기에, 2013년 어려운 외부 환경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동안 야심 차게 준비해 온 Purifier를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2차배관공사를 시장에 진입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Staff부서에는 2가지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는,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R&R 정립 및 Cross-Check 기능 강화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왔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기 때문에, 좀더 Speedy한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Staff부서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많은 개선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고도화와 인재의 조기 육성 추진입니다.

지난 해 대대적인 HR Project를 통하여 전략적 인사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올 해는 그 결과물을 활용하여, 경영목표달성과 성과창출을 위해 더욱 고도화된 인사관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합 이 후 직급별 교육, 학습조직, 직무기술교육, OJT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재 육성을 위한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부하며, 이러한 문화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3년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발판의 해가 될 것입니다. 잔잔한 파도는 노련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 더욱 더 정진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각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3년, 계사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가족의 건강과 함께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도 유럽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경영 환경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세계 경제의 위기들로 인하여 올해도 어느 해 못지 않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

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여 내실을 키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는 그 동안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벤처 투자회사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새로운 영역을 확장시켜 보다 더 진일보한 자산운용회사의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1,700억원의 PEF Fund 결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 이면에 투자실패 사례도 동시에 경험한 한해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 임직원 일동은 뼈아픈 지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회사는 창의롭고 열정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간 우리 회사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의와 열정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기업문화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임직원 개개인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에서 주어진 업무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위한 구체적인 Action Plan과 함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으로부터 찾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조직은 정해진 원칙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기본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의 구분, 회계 및 관리의 투명성 유지 등 자칫하면 소홀해질 수 있는 기본 원칙들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새해 2013년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회사가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기업,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러운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2012년 임진년(壬辰年)이 저물어가고, 대망의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뱀은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어 신앙의 대상으로도 삼는다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원익은 “무한 창조 정신을 통한 고객과 사회, 임직원의 성장에 공헌하는 글로벌 리더”의 비전 아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2013년도에 원익이 나아가야 될 경영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중점분야 신규사업 개발 및 신제품 개발

- 글로벌 메이저업체 판권 확보
- 국내제조사 국내·외 영업판권 확보
- 해외업체 조기 투자참여
- 원익의 新성장 기반 구축

둘째, 마케팅 역량 강화로 급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 마케팅 Tool의 다양화 및 활성화
- 신제품 출시 프로그램 대폭 강화
- 시장을 작게 정의하고 깊게 연구

분업과 가까운 곳부터 미래기회를 탐색 하여 가치사슬, 사업 도메인을 세분화해 순차적으로 인접영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셋째, 최우선적인 위험 관리를 통한 재무 안전성 확보

- 경영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한 비용혁신 추진
- 재무구조 강화로 차입축소, 자산 재평가 등을 통한 부채비율 하향
- 상황변동에 따라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시나리오 별 비상 계획 마련

새해에는 이구환신(以舊換新) - 낡은 것을 새것으로 바꾸다의 마음으로, 지난 해 동안 감히있었던 낡은 사고방식과 잘못된 관행을

모두 도려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 하여 원익이 재탄생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원익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2013년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2013년을
기원합니다.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가족 분들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원익 가족 여러분!

“2013년 계사년이 기운차게 시작 되었습니다. 2013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가족 분들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한해 한해가 넘어가는 달력과 더불어 일상으로 비춰질 수있겠지만 2013년은 그 어느 때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계획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올해는 무엇보다도 “행복”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이고 친숙한 말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마음으로 진실로 느끼기에도 또한 어려운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행복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 중 한가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은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꺼내는 의미는 내 자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사실을 마음에 담아 자주 꺼내 보면서 2013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 합니다.

행복한 우리가 행복한 원익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원익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2013년에도 또 다른 멋지고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Happy New Year!

원익 가족 여러분!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외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땀으로 '성장'이란 열매를 가능하게 하였고, 올해 더 큰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2013년 예상되는 외부 환경은 환율 하락,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유럽 금융 시장 경색 등 부정적 요인은 지속되고, 대표적 전망시장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 정체, Display 분야의 불확실성 등 사업 전반적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즐거운 일터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일터의 시작은 소통

열정적이고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일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있다고 느끼며, 그 일을 할만한 지식과 기술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때 즐거운 일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여야 합니다. 이 공유와 공감대 형성과정이 소통이며 소통을 통하여 스스로 생각할 경우 회사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게 되고 창의와 도전과 열정의 기업문화가 싹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同床異夢(동상이몽)을 異床同夢(이상동몽)으로 변환시키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동몽은 잠자리는 다르지만 같은 꿈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제조, 영업, 기술개발, 품질, 구매, 경영지원 등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계사년은 우리 모두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상동몽'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가족 여러분!

2013년 계사년(癸巳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은 우리 위닉스가 자립의 원년으로 삼은 해로, 어느해 보다 바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힘든 일도 있었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는 보람도 있었지만 어려움을 함께 노력하여 극복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 됩니다.

2013년은 우리가 한걸음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과감한 조직 개편을 통해 막중한 중책을 맞게 된 부문장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적인 도전 정신으로 관리 효율을 제고하고 안일한 의식을 타파하여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좋은 것은 10% 더 좋게, 나쁜 것은 10% 감소 시키자는 '텐텐 캠페인'을 통해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거듭 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뱀은 해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동물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으려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힘든 고통을 다 함께 견디고 위로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닉스 가족 여러분!

밤이 깊어 질수록 새벽은 우리 가까이로 다가 옵니다. 지난 몇 년간 어려웠던 시간을 곳곳이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태양이 훤히 비치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노력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하며, 2013년에는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원종합개발 가족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의 장기불황으로 건설업계 전반이 지나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고, 올해 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못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새로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한 CEO로 기억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원가족 여러분!

우리는 작년 회장님 신년사를 통해 전파된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올해 또한 이를 실천하고 확립하기 위한 실행전략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3惡心 버리기' 운동을 통해 '자유, 소통, 행복'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합니다. 이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자유로운 사고와 공동운명체로서의 조직시너지를 활용하여 최적의 역량으로 최대의 기업이익 실현을 달성하고자 하는 신원의 실행전략이자 과제입니다.

첫째, '사사로운 마음 버리기'입니다.

작은 유혹이라 하더라도 욕심, 시기, 질투의 유혹을 버리고 '정심정도(正心正道)'의 길을 걸어갑시다.

둘째, '열외의 마음 버리기'입니다.

회사가 정한 방침과 규정을 무시하고 방관하거나 열외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공동운명체로서 '여럿이 함께' 나아갑시다.

셋째, '안된다'는 마음 버리기'입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된다'는 선입견으로 개선과 전진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지 말고 도전과 확신의 마음으로 이 난국을 함께 헤쳐 나갑시다.

신원가족 여러분! 올해 회사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수주목표로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수주전략과 정확

한 건적실행, 원가절감을 통해 목표 달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각 개인은 본연의 직무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계 만큼이나 부침과 격랑이 심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강자에겐 기회가 약자에겐 위협이 될 것이며, 준비된 자에게는 도약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픈 마인드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헤쳐 나갈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솔한 열정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거친 풍랑의 바다에 무사항해의 키를 놓지 않는 선장으로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새해 소망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2013년을
기원합니다.



(주)원익

내과 및 근골격계 고기능 초음파기기 마인드레이 DC-T6 출시

-DC-3에 이어 DC-T6도 국내시장에서 돌풍 일으킬지 관심

의료기기 전문기업 (주)원익은 진단초음파 의료기기인 마인드레이(Mindray Medical) DC-T6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인드레이 DC-T6은 복부 및 갑상선, 심장초음파 진단에 뛰어난 영상을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영상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부품인 고감도 리니어 프로브(선형 초음파 탐촉자)를 장착하여 갑상선 및 근골격계 진단의 정확성을 높인 제품이다. 뛰어난 영상을 위해 첨단 변환기술이 적용되었으며, 고가 장비에서만 구현되던 8채널 초음파, 장기 깊숙한 부위까지 고감도 고해상 표시가 가능한 기능(Phase Shift TH)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다. 또한 배터리를 옵션으로 장착하고 있어 콘솔타입에서 2시간 정도 구현되는 점도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여준다.

글로벌 초음파 의료기기 브랜드인 마인드레이가 보급형 진단초음파기기를 선보인데 이어 중상급 초음파 기기를 국내에 출시함으로써 기존 초음파기기 구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기능을 구현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 초음파 의료기기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마인드레이가 국내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원익 메디칼사업본부 이창진 본부장은 “고화질 영상과 고기능을 구현한 초음파기기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보급형장비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병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초정밀 초음파 라인업까지 확대하여 본격적인 초음파 기기시장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올 하반기에 출시한 마인드레이 초음파 기기들을 바탕으로 보급율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원익

유니세프 기부 행사 ‘아름다운 가게’

(주)원익은 아름다운 가게를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운영 및 유니세프 기부행사를 진행하여 수익금 전액을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임직원 개인물건을 기부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모아 기부하는 행사로 임직원 개인의 물품을 기부함으로써 추억의 공유 및 임직원간 소통의 장이 마련 되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임직원 물품 기부 뿐만 아니라 도시락판매금 기부와 회식비 기부 및 임원들의 기부까지 이어져 (주)원익의 문화로 정착해가고 있는 중이며 이 기부금은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주)원익**2013년 Kick-off Meeting**

(주)원익은 2013년 01월 04일(금) Kick-off meeting을 당사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계사년을 맞아 진급자 사령장 전달과 2012년 실적 리뷰 및 2013년도 각 사업부별 경영 계획과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3년 新윤리 강령에 대한 교육과 개인별 서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이라 목표를 임직원 개인별로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다.

**(주)원익큐엔씨****원익QnC 사회 봉사단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시행**

(주)원익QnC 사회봉사단인 원익 나눔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이틀간 복지관 강당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진행하였다. 이번 나눔에서는 배추 200포기와 무우 등을 사용하여 김장을 진행하였으며 봉사단 위원 및 가족이 참여 하여 직접 김치를 담구고 배달 하는 등 사랑과 온정을 나누는데 있어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나눔의 시간이었다.

김치소가 준비되자 봉사단원들은 정한 역할에 따라 일산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길게 늘어진 테이블 앞에선 단원들은 절인 배춧잎을 한 장 한 장 들춰가며 김치소를 담았다. 나머지 단원들은 김치통을 옮기고 포장하느라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김치는 5Kg씩 포장해서 라면 1Box와 함께 지역 독고노인 및 저소득 계층 어려운 주민 50세대에 방문 전달하여 차가운 겨울 따듯한 온정을 나누어 가졌다. 이 날 나눔에 참여한 봉사단 관계자는 "지난번 행사에 이어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뜻 깊은 봉사활동을 가졌고 봉사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원익 나눔회에서는 지난 달에는 주변 불우이웃 20세대에 사랑의 쌀 전달 행사를 시행 했었다.



(주)원익큐엔씨

원익QnC 세정사업부 삼성전자 동반성장상 수여

원익QnC 세정사업부는 삼성전자(주) DIFF Quartz 외주세정 SCM 추진업체로 2011년 2월 선정되어 삼성전자(주) 내부에서 진행해오던 Quartz 세정업무를 성공적으로 Outsourcing 완료하였다. 이는 단 기간 공정 Set-up을 완료 하였으며 다음 세 가지 부분의 공로가 인정되어 2012년 9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센터장으로부터 “동반성장상”을 수여 받았다. 첫째, 고질적인 Particle Issue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품질 안정화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둘째, 전산시스템(MES, WEB Server)을 구축하여 고객사에 Real time으로 생산,품질현황을 공유하고, 셋째, 라인별 부품을 통합관리하여 공용화에 기여한 점 등. 이번 수상을 한 원익QnC 세정사업부는 정밀세정을 통하여 고객사의 글로벌 지배력 강화에 초석이 되고자 2011년 3월 사업부를 발족하여, 2012년 말경 처음으로 월 매출 10억을 달성하였다. 동 사업부는 이번 수상을 새로운 발전과 향상의 커다란 일보가 될 것이라고 자축하며, 앞으로도 사업부장을 중심으로 일심동체하며 모든 원익QnC 동료들과 한마음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하였다.



(주)원익아이피에스

맛있는 소통으로 감사의 마음 전하세요!

떡볶이, 순대, 튀김을 가득 담은 ‘간식차’가 이동한다. 간식차를 끄는 주인 공은 바로 간식이벤트에 당첨된 멋진 파트장님들!
쌓여져 있는 피자, 그 위에 올려진 치킨링, 콜라, 간식을 양손 가득 안고 그들을 기다리는 파트원들에게 간다. 그들은 바로 간식이벤트에 당첨된 원익 아이피에스의 센스있는 사원들!

2012년 기업문화 핵심가치인 ‘소통’의 실천을 위해, 원익 아이피에스는 11월에는 각 파트장들을 대상으로 ‘파트장이 쓴다.’, 12월에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사원의 품격’이라는 이벤트명을 걸고 간식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평소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이야기들, 칭찬의 이야기들로 이벤트 게시판은 가득 채워졌으며,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사연들을 선정하여 간식을 배달하였다. 배달된 음식을 서로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파트원들간에 소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주)원익아이피에스**‘제1회 반도체협회장배 족구대회’ 개최**

반도체협회 회원사의 임직원들간의 친목 도모 및 화합을 위해, 반도체협회 주관으로 10월 20일, 제1회 반도체협회장배 족구 대회가 단국대 죽전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개최됐다.

가을 햇살의 화창한 날씨 아래, 32개 회원사들의 선수들이 모여, 총 11개 조로 나누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원익아이피에스는 각 사업부 인원들로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총 10명의 선수단 (단장 박희원 상무 외 9명)을 구성하였으며, (주)PSK와 (주)로봇스타와 함께 4조의 배정이 되어 명경기를 펼쳤다. 함께 모여 연습할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웃음으로 서로를 독려하며 팀웍을 발휘해 8강까지 가는 저력을 보였다.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족구대회는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평소 함께 모여 소통할 기회가 부족했던 반도체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같은 공간에서 땀 흘리고,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소통의 시간이었다.

**(주)원익아이피에스****원익 아이피에스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경기도 평택시 진위천 한가운데 야외특설무대가 보인다.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들려온다. 차지만 따뜻한 가을바람에 수백 명의 원익아이피에스 임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실려온다.’

지난 10월 18일 치뤄진, 임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주제로 한 ‘원익아이피에스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의 모습이다.

이날 행사는 쾌청한 날씨 아래 임직원 약 450명이 참석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강남스타일 단체 댄스 몸풀기로 시작하여, 풍선 기동 세우기, 서바이벌 단체줄넘기, 행가레 릴레이, 이벤트 달리기, 7인조 그룹의 초청공연, 시상식, 행운권 추첨,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체육대회는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렬한 호응으로, 승패에 관계없이 연신 즐거운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이날 이문용 대표이사는 ‘오늘 보여준 우리 임직원들의 열정으로, 내년에도 업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원익아이피에스인이 되자’는 폐회사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원익아이피에스, 21주년 창립기념행사 실시

지난 10월 15일 (주)원익아이피에스의 21주년 창립기념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창립기념일은 9월 27일) 이 날 행사는 시상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시상에서는 근속상, 공로상, 엔지니어상, 서포터즈상이 시상되었고, 특히, 창립 이래 최초로 20년 근속상을 수상한 TGS본부 강문모 부장은 상금 200만원과 포상휴가 10일,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부상으로 수여 받아, 장기 근속자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고 조직의 로열티를 강화하는 뜻 깊은 순서였다.



다음은 위촉식이 거행되었는데, 각 사업부에서 선발되고 양성된 19명의 전문강사가 위촉되었고, 이들에게는 개인 이니셜이 새겨진 스마트포인트가 지급되며, 향후 사내 전문교육 과정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설비의 성능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SMC&SFD 양 부문의 ECCB (Engineering Change Control Board), PCCB (Process Change Control Board)가 위촉하였다.

끝으로, 4분기 경영현황 설명회와 대표이사 말씀이 진행되었는데, 이 날 이문용 부회장은 고객사의 투자 축소 및 지연으로 인하여 외부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2000년 대비 3.2배의 매출 성장을 이루고 신 성장동력을 확대한 임직원을 격려했다. 적극적인 자세로 향후 Vision달성을 위해 힘쓸 것을 당부하였고, 임직원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하였다.

(주)원익머트리얼즈

한센인대회 봉사부문 수상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12월 4일 김포공항 SC컨벤션에서 열린 '2012 한센인대회'에서 2012 대한민국한센인대회 봉사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주)원익머트리얼즈의 그간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환원활동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 깊은 상이다. (주)원익머트리얼즈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한우리" 봉사회는 그간 한센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과의 만남으로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를 매월 테마를 정해 봉사활동을 통해 적극 후원해왔다.

한센병의 차별과 편견 속에서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오랜 소통으로 차근차근 도움의 손길을 뻗어가고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의 한우리 봉사단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닌, 따뜻한 관심과 함께 어울림이라는 것을 몸소 적극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주)원익머트리얼즈는 내년 역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회사가 발전하는 만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더 앞장 설 계획이다.

(주)원익머트리얼즈

Wimco 송년의 밤 행사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12월 27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2012원익머트리얼즈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송년의 밤 행사는 한해 동안 회사를 위해 힘써 준 (주)원익머트리얼즈 전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을 위한 미래비전의 다짐을 위한 뜻깊은 의미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1부 행사에서는 연말 시상 및 기업문화 발표에 이어 한해 직원들의 간절한 새해소망을 적어 보는 “WIMCO소망나무” 시간을 갖고,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열정 넘치는 신입사원 공연과 함께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등 한 해동안 수고한 임직원들을 위한 즐거운 시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행사의 마지막에는 임원들과 전 직원들과의 뜨거운 악수인사를 통해 따뜻한 감동의 격려로 훈훈한 마무리를 장식했다.

이건중 대표는 이번 행사에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이 함께 즐기고 격려하며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자긍심 함양을 통해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종합개발(주)

신원종합개발 기술부문 '2012년 하반기 VE 워크샵' 실시



신원종합개발 기술부문은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VE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2012년도 하반기 VE 워크샵에서는 상반기에 실시한 VE 외부 전문강사 초빙 교육에 이어서 각 현장별 VE 사례 발표와 직원간 '소통'을 위한 1박 2일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금번 VE 사례발표 및 워크샵에서는 전주 효자동 주상복합 현장 외 총7개 현장에서 총 21건의 VE 실시사례를 통하여 약 4.3억의 원가절감 및 가치향상을 극대화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전주 효자동 현장의 경우, 착공시 철저한 사전 도면검토를 통하여 흙막이 가시설에서 CIP H-Beam 근입깊이 등을 조정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을 높였고, 청담동 도시형 생활주택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도면검토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설계사항을 변경시공함으로써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수공법 변경등으로 원가를 절감하였다.

특히, 산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토목현장의 경우 작업여건에 따른 웅벽형식 설계변경 시공으로 공기단축 및 약 2억원의 원가절감을 실시한 것이 돋보인다.

또한, 기술부문 본사 및 현장 직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하여 각 현장의 현안 및 애로사항들을 논의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신원종합개발(주)

‘2012 신원인 송년의 밤 실시’

신원종합개발은 지난해 12월 13일 한해 동안 땀흘려 고생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전 임직원이 함께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원 가족의 ‘소통, 행복’을 위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12, 신원인 송년의 밤’을 보낸 신원종합개발 임직원 모두는 내년 한 해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원하며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송년의 밤을 통해 신원종합개발 임직원 모두는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2013년을 힘차게 맞이할 것 다짐했다.





원익인의 힘찬 함성으로 2013년 계사년 한해가 시작되었다



원익인 모두의 노고를 격려하며 2013년 더 큰 내일을 열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2013년 원익시무식이 1월 2일 오전 9시 국제 전자센터 12층 아베뉴 홀에서 열렸다. 원익 임직원 및 계열사 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무식은 2012년 원익인상 수여식



과 신규 임원 및 승진임원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에 이은 이용한 원익 회장의 신년사를 끝으로 시무식을 마친 후 임원 60여명이 함께 청계산 등반길에 오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시무식은 2012년도 원익을 빛낸 「2012, 원익인상」 시상식으로 시작되었다. 원익 전 계열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원익인상은 영예의 대상과 함께 기술개발 부문, 생산 부문, 관리·혁신 부문, 영업·마케팅 부문까지 총 4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출하는 원익 최고의 상이다.

이번 원익인상에는 대상과 관리·혁신 부문의 수상자는 선정되지 않은 가운데, 기술개발 부문에서 (주)원익아이피에스 디스플레이 본부 양호식 부장이, 영업·마케팅 부문은 원익 통상사업부 양지용 부장이 선정되었고, 생산 부문에서는 (주)원익큐엔씨 세정사업부 김영수 부장과 (주)원익머트리얼즈 품질팀 이재준 부장이 공동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다음으로 진행된 2013년도 신규임원 및 승진임원 사령장 수여식에서



는 (주)원익머트리얼즈 이건중 사장과 김광호 부사장, (주)원익 이창진 전무와 양지용 상무, (주)원익아이피에스 김채빈 전무, 이근우 전무, 류동호 상무, 기획조정실 김지만 상무가 각각 승진임원 사령장을 수여받았다.

원익인 시상식과 신규임원 및 승진임원 사령장 수여식을 모두 마친 후 마지막 순서로 원익 이용한 회장의 신년사가 이어졌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원익 임직원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시작된 신년사에서 이용한 회장은 어느 해보다 단호하면서도 굳건한 목소리로 원익인 모두에게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정,투명을 기본가치로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의 추구

이 회장은 “2012년은 경기 침체로 세계경기가 위축되고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원익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기업문화에서 “아직 변화의 속도가 만족

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노력해온 공정, 투명의 기본가치 조차 흔들리는 것



을 보았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초 일류기업을 지향하고 세계 일류기업만이 살아남는 현실에서 어떻게 2류, 3류 문화, 기술을 가지고 냉정한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존,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초 일류기업만이 살아남는 현실에 맞추어 문화,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생존, 번영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예상되는 불경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함을 거듭 촉구했다.

이 회장은 “어려운 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여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자유, 소통, 행복 추구의 기업문화가 생존과 미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틀이며 기본임을 임직원 모두에게 강조하였다.

이 회장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공정, 투명의 가치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소통하며, 열정과 행복이 있는 회사로 만들자”고 독려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회사, 원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언급하면서 “기업문화, 기업 가치를 모두가 가슴 깊이 공유하고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임을 힘주어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회사, 원익’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함께 걸어가자고 독려했다.

원익만의 기업문화는

생존과 미래성장을 위한 기본

끝으로 이용한 회장은 2013년 경제가 어렵고, 특히 반도체 부문의 고전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절대 위축되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서 기본에 충실하며 자산 및 자금의 유동화에 노력하고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며 미래투자, 인재투자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할 것을 주문하며 신년사를 마쳤다. 2012년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함께 2013년 “변화의 초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용한 회장의 메시지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원익인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13년도 승진 인사 및 신규임원 선임

사장 승진 (1명)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3명) 신규임원 선임 (3명)



(주)원익머트리얼즈
이건중



(주)원익머트리얼즈
김광호



(주)원익
이창진



(주)원익아이피에스
김재빈



(주)원익아이피에스
이근우



(주)원익
양지웅



(주)원익아이피에스
류동호



기획조정실
김지만

2012년 원익인상



(주)원익아이피에스
디스플레이본부
양호식 부장

세계 최초 OLED TV 용 AI Cathode Source 개발 성공, AMOLED 55" TV용 AI Cathode 정비 개발 납품 성공



(주)원익큐엔씨
세정사업부
김영수 부장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통한 영업이익 확대 기여, 세정 양산 라인 Set-up 및 안정화 실현



(주)원익머트리얼즈
품질팀
이재준 부장

고객사 신규 공정평가를 위한 분석기술 개발로 매출 확대 기여, 품질개선 활동 확대를 통한 외부 발생부적합 최소화 실현



(주)원익
통상사업부
양지웅 부장

신규 아이템 및 신규 사업개발을 통한 매출 및 매출이익 증대 기여, 해외 거래선과 독점 공급계약 체결 성공



**한마음 한 뜻으로 오른
2013년 신년맞이 원익 임원 산행**



한편, 시무식 일정을 마친 원익 임직원들은 한편에 마련된 다과를 함께하며 뜻 다한 새해인사와 가벼운 담소를 나누는 뒤 곧바로 청계산 등반에 올랐다. 이용한 회장과 이문용 부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 약 60여명이 참가한 청계산 등반은 연말부터 새해까지 연이어 내린 눈으로 등산로 곳곳이 빙판이 됐을 것으

로 예상하면서 등반 계획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날씨가 이른 새벽부터 눈이 그치며 맑아진 덕분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옛길을 출발해 매봉과 헬기장을 지나 이수봉에 이르는 제1등산코스로 산행을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자연경관을 바라보면서 오를 수 있는 완만한 산행코스로 알

려져 있지만 등산로에 쌓인 눈 때문에 산행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가득했다. 이수봉에서 준비해온 물과 간식을 나누는 임원들의 얼굴은 밝아보였다.

이번 청계산 등반에 참가한 원익 임원들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익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2013년 한 해가 어렵고 힘들어도 원익인 모두는 이번 청계산 등반에서 보여준 열정처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듯 새해 첫날 원익인이 함께 서로 격

려하고 끌어주며 눈썹인 힘든 코스를 극복하고 정상에 올라 지난 30년간 다함께 노력해 온 노고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초 일류기업을 지향하고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경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장”을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마음을 담아 정상에 선 원익인의 힘찬 함성으로 2013년 계사년 한 해를 열었다.

고 원익 임원진은 등산화에 아이젠을 장착하는 등 만반의 준비한 끝에 1시간 30분에 이르는 모든 등반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해냈다는 만족감도 엿보였다.

새해 첫날부터 쉽지 않은 등반 일정을 마친 원익 임원 모두의 얼굴에는 땀과



DREAM



30 Discovery of Baduk
제8기 원익배 십단전 본선 경기 진행
원익배 십단전 본선 진행중, 16강 진출자 10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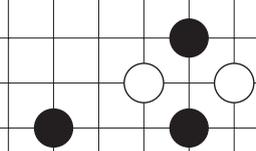
32 Wonik Dream Team
(주)원익큐엔씨 세정사업부
김영수 부장과 직원들



36 Talk Box
2013년 원익인의 새희망
2013년 새해소망 새해계획

제8기 원익배 십단전 본선 경기 진행

원익배 십단전 본선 진행중, 16강 진출자 10명 확정




제8기 원익배 십단전은 지난해 10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예선전을 거쳐 최종 56명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여 본선 1회전을 마무리 하였으며, 2013년 1월 현재 16강 진출자를 가리는 본선 경기가 한참 진행 중이다. 여덟번째 십단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본선 1회전 및 2회전에서 평소보다는 많은 이변을 낳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초반부터 많은 바둑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대회인 원익배 십단전은 217명이 예선전에 참가했으며 49명의 예선 통과자와 본선시드 7명(전기 4강 : 최철한, 강동윤, 홍기표, 강윤택, 후원사 시드 : 서봉수, 여류십단전 우승, 준우승 : 조혜연, 김혜

민) 등 총 56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경기는 피라미드 토너먼트 형태로 결승 진출을 다투며, 타이틀 결정전은 결승 3번기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전기 대회에서는 최철한 9단이 강동윤 9단에게 2-0로 승리하며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전기 우승자인 최철한 9단의 대회 2연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우승할 경우 박정환 9단에 이어 두번째 연패 기록을 달성하게되며, 이창호 9단과 박정환 9단에 이어 3번째로 십단전에서 2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본선대회에서는 4회전에 만날 것으로 보이는 이세돌 9단과의 대결이 최대 고비가 될 것

으로 보인다. 본선 초반에 이번으로 기록되는 경기는 본선 개막전이었던 김기용과 박정환의 대결에서 김기용6단이 깜짝 승리를 거두며 당시 랭킹 1위였던 박정환 9단을 격침시킬 것으로 시작으로 여류 십단전을 통해 원익배 십단전 본선에 직행한 조혜연 9단과 김혜민 6단도 여성 바둑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본선 1회전에 탈락하게 되었다.

또한, 후원사 시드를 받은 서봉수 9단과 여류기사 최강 박지는 9단과 박정상 9단, 김지석 8단도 본선 1회전에서 모두 탈락하였다. 이에 반해 십단전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 백홍석 9단과 허영호 9단, 이영구 9단은 본선 3회전까지 무난하게 진출하였으며 유창혁 9단도 3회전에 안착하였다.

이 밖에도 8기 원익배 십단전은 한국바둑의 미래를 짊어질 영재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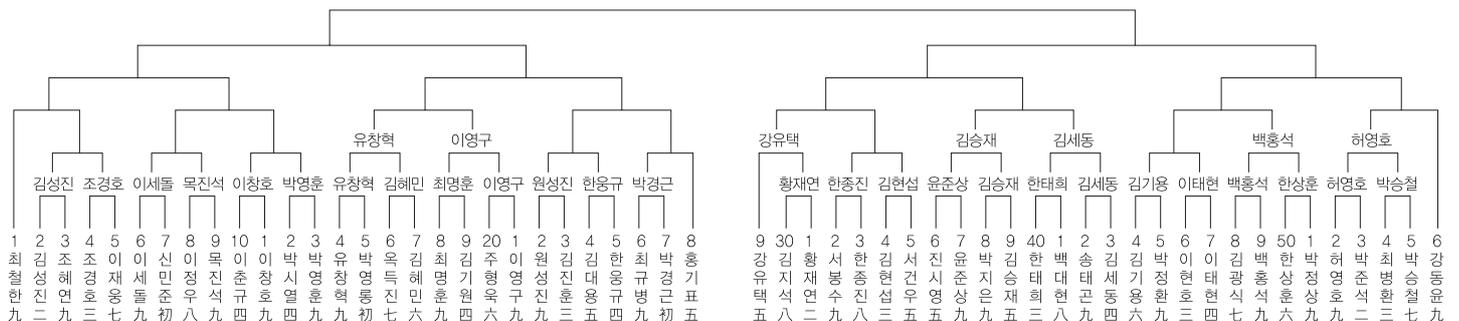
단대회 출신 신민준 초단이 본선에 진출하며 많은 기대를 받았으나, 본선 1회전에서 만난 사실상의 현재 국내 바둑계의 1인자 이세돌 9단에게 석패하며 본선 2회전 진출에는 실패하였다. 10월 30일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 붙이며 침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며 승기를 잡았지만 뒷심 부족으로 이세돌 9단에게 역전패하였다.



본선 2라운드 최고의 빅카드는 '신산' 이창호 9단과 '뉴신산' 박영훈 9단의 대결이 1월 21일로 임박해 있으며, 백홍석 9단과 허영호 9단의 4라운드 대결도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창혁 9단도 본선에서 2승을 거두며 현재 본선 3라운드를 준비 중에 있으며 본선 3회전에 이영구 9단과의 대결도 바둑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이다.

제8기 원익배 십단전은 원익 계열회사가 후원하며 경향신문, 바둑TV가 공동 주최한다. 우승상금은 5천만원이며 준우승상금은 2천만원이다. 제한시간은 각자 10분 40초 3회가 주어진다.

제8기 원익배 十段戰 본선 대진표(2012~2013년)





투명한 관리
시스템으로
고객 신뢰를
이끌어내다

고객에게 신뢰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원익큐엔씨 세정사업부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세정사업 파트너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실시간 현장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 단계에서 고객 신뢰를 받다**

지난해 9월 (주)원익큐엔씨 세정사업부는 고객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데 힘입어 삼성전자로부터 동반성장 협력상을 수상하였다. 건물을 신축하고 작년 장비가 갖춰지기 시작한 것을 작년 2월이었음을 감안할 때 짧은 시간에 이루어낸 놀라운 결과다. 이 같은 성과는 세정사업부에서 직접 만들어낸 효율적인 현장 실시간 관리 시스템인 'MES'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정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김영수 부장은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동시에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업초기에 정착시키고자 했고, 이는 "MES"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김영수 부장은 "MES는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웹에서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공정별, 제품군별 등 다양한 기준에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가능하고, 세정품의 반입에서 반출까지 전 공정을 한 눈에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김 부장은 "MES가 현장과 고객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고객만족 향상을 이끌었다"면서 "동종업계에서 웹상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은 원익이 유일하다"고 강한 자부심을 전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뤄낸 성과지만 쉽지만은 않았다고 김 부장은 전한다. 그 동안 세정사업이 모든 관리, 기록을 수작업으로 진행해온 탓에 관리 부분에서 100%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해왔다는 것이다. 덕분에 세정사업에 대한 주변의 회의어린 시선도 많았다는 것. 그러나 MES의 도입으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고객들의 인식도 이제는 '원익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업무효율성 향상과 고객만족으로
 매출 극대화를 함께 이룬다**

2012년에 세정사업부가 올린 매출은 약 80억에 달한다. 지난해 5월에 모든 양산라인에 Setup이 완료된 후 본격적으로 설비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8월 무렵. 2012년 세정사업부의 매출은 “짧고 굵게”에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불필요한 관리요소를 줄이면서 자동화된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업무 및 생산 효율성을 함께 높였기에 가능했다.

김 부장은 “자료를 취합하는 것도 기존 방식대로라면 자료조사 및 문서화를 위해 일주일가량의 시일이 소요되지만 MES는 버튼 하나

로 원하는 자료가 수치, 도식화되어 정리가 된다”면서 “덕분에 관리자 인원을 슬림화 시키고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호천 과장은 이를 “놀라운 성과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그는 “4~5개의 기존 경쟁업체들이 있지만 이 정도의 시간에 이 만큼 매출을 이끌어내는 곳은 본 적이 없다. 함께 일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지금까지 1년 반 정도는 시작단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현장인원에 대한 관심과 효과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을 통해 강한 현장, 강한 조직문화를 함께 정착시켜 내실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경훈 과장도 “(주)원익큐엔씨 세정사업부의 MES 프로그램은 다른 세정업체에는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면서 “작년 이 물량이 늘어나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이를 안정시키는 단계”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국내외 경기가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는 가운데 세정사업부에는 월 5~6000개의 세정 의뢰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수 부장은 “앞으로 반도체를 비롯하여 관련 업종으로 고객의 수요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원가절감을 통해 100억대 매출 목표를 이루어낼 것”을 다짐했다.

세정사업부는 효율적인 장비 가동을 위해 기존 세정설비를 개조하여

Capa를 향상하고 다양한 제품이 처리 가능하도록 검사대 및 각종 Jig를 개선하고 있다. 여기에 케미칼 부분에서 원가 절감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올해 안으로 중국진출에 대한 계획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세정사업에 대한 전망은 한층 긍정적인 상황이다. 또한 MES를 비롯해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 그리고 영업노력까지 세정사업부의 시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수 부장은 “올해는 품질 안정화를 통한 고객만족이 목표”라고 전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다짐했다. “고객만족은 우리의 몫”이라는 김 부장의 말처럼 앞으로도 (주)원익큐엔씨 세정사업부는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글 김도웅 · 사진 조인기





“
Action보다는
Reaction이 강한 사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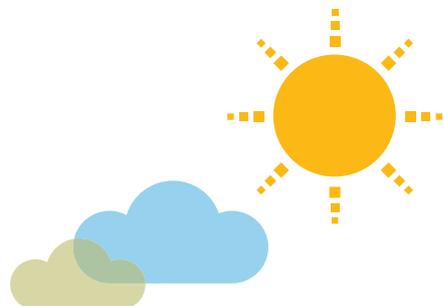
“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

“
소망과 결심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
올 한해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

“
뜻 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
튼튼한 원익의 버팀목으로
성장하겠습니다
”



2013

새해소망 새해계획

(주)원익_Aesthetic Div. 성열석 사원



안녕하세요. 원익 Aesthetic Div. 신입사원 성열석입니다. 어느덧 입사한지 벌써 4주가 되어가네요. 학생이던 어제와 다르게 하루하루 출퇴근 시간의 번잡함과 국제전

자센터의 곳곳이 아직 낯설게 느껴지지만, 원익이라는 단단한 울타리와 선배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 덕분에 하루하루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2013년 저의 계획이자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후회 없게 20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20대라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청춘을 보내면서 많이 경험하고, 고생도 사서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한 해 남은 20대 맹랑하고 무모한 도전으로 훗날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오늘을 회상하며 한 번 ‘씩~’ 웃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 취업준비라는 거창한 핑계로 가족, 소중한 친구들과의 만남과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응원군이자 재산인 가까운 사람들에게 올해에는 받은 것 이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꽤많은 놈’ 성열석이 되는 것이 저의 계획이자 이루고 싶은 소망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회이자 설렘입니다. 시작의 출발점에서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원익의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몸으로, 발로, 그리고 젊음으로 선배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든든한 원익의 버팀목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익큐엔씨_세정사업부 배광복 사원



직장인을 대상으로 2013년 새해 소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새해 소망 1위는 놀랍게도 이직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정말 어느 직장이든 경기 침체로 인해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나 봅니다. 이리하여 임금 동결과 같은 상황이 뒤따르면서 심적인 갈등과 보다 더 나은 직장을 찾으려고 하지만 어딜 가나 마찬가지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13년에는 좀 더 나아져서 자사에 큰 성과가 있었음 하는 첫 번째 소망입니다.

두 번째 소망으로 필자는 작년 10월에 결

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 당시 제 아내는 임신 16주였네요. 과속스캔들이죠 마치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지만 요즘은 흔해서 주변 분들도 그리 탓하진 않더라고요^^; 그리하여 올해 3월말 첫째 득남 예정이랍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아빠를 닮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보단 엄마를 닮았으면 합니다만^^;; 무엇보다 건강하게 태어나줬음 하는 바람입니다. 산모 역시 당연 무사해야하고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이 매우



많습니다. 위험물, 영어, 한자능력, IT 관련 등 노력중입니다만 이 많은 것들을 올해 안에 모두 취득하겠다고 한다면 욕심이었지요. 단 하나의 자격증만이라도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욱 바빠져 학습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짬짬이 신경을 써서 필히 성취하여 저의 스펙을 한 층 높이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2013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사고 건 수는 직장 내, 외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운전 할 때는 항상 초보운전이라 생각을 해야하고 일을 할 때는 자만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사히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새해가 되면 새해마다 새로

운 계획을 세우고 각오를 다지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3 계사년에는 이 모든 소망과 계획이 이루어져 연말에 또 한 번 한숨쉬며 후회하지 않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으면 좋겠다는 허황된 꿈보단 현실적으로 이를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세워 노력하며 뜻 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_ 인사팀 문인준 사원



Thinking 보다는 Action이 강한 사람!
Action보다는 Reaction이 강한 사람!

원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2년 담으로 쌓아올린 한 해 좋은 결실 맺으셨나요?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축복과 행복이 함께하는 한 해 되십시오. 원익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먼저 새해 인사드립니다.

저는 원익 아이피에스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3년차 문인준 사원입니다. 모두들 새해 계획은 세우셨나요? 2013년의 새해 계획에 대해 원익 가족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제 스스로 다짐하고자 몇 가지 적어봅니다.

2013년, 새해 계획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Thinking 보다는 Action이 강한 사람! Action보다는 Reaction이 강한 사람!'이 되자' 입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Thinking 보다는 Action이 강한 사람',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Action 보다는 Reaction이 강한 사람' 이 되는 것이 저의 새해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자 몇가지 세부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Thinking 보다는 Action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계획'

1. 멘토정하기 - 멘토의 의견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며, 디테일한 모션을 배울 수 있다.
2. 업무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기 -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짓지 않는 것이다. 끝을 보는 사람이 되자!
3. 일정을 세우고 그에 맞춰 일하기 - Action이 강한 사람의 가장 큰 무기는 계획성이다.
4. 1달에 업무관련 서적 2권 읽기 - 내공이 있어야 빠르고 정확한 Action이 가능하다.
5. 인사관련자격증 (직업상담사), 외국어 자격증 (OPIC IH) 취득하기 - Action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지속적인 Action을 가능케 한다.

'Action보다는 Reaction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계획

1.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온가족이 모여 식사하기 -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소홀해지는 사람 - 가족들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 가족과 소통하기
2. 칭찬하고 시작하기 -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대화를 칭찬으로 시작하기
3. 모임 또는 회의에서 입보다는 귀를 더 열어두기 -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몇가지의 표정과 반응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

하다.

4.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의견을 통해 계획 세우기 - 현업 인원들은 나의 고객, VOC 경청은 필수!
- 2013년 한해는 업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한층 더 성숙한 제가 되고자, 거창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2013년 연말에 몇 개나 지켜졌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원익 가족 여러분 모두 2013년 새해에 세

우신 계획들 잘 지키셔서 연말에는 자신에게 큰 선물 줄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hinking 보다는 Action이 강한 사람! Action보다는 Reaction이 강한 사람! 이 되고 싶은 원익아이피에스의 문 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_생산팀 김만식 대리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지나고 2013년 계사년이 밝았습니다.

먼저 원익머트리얼즈 1호 쌍둥이를 얻은 2012년은 저에게 큰 선물로 다가온 한 해였습니다.

2012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아, 예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비록 예정보다 3주 일찍 태어난 작은 쌍둥이들이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을 지내게 되어 마음 고생 많이 하고, 바쁜 나날들로 올 초 계획했던 야간대학 가기, 자격증 취득하기 등의 계획들도 모두 이루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건강한 두 아이의 예쁜 미소 덕분에 올 한 해 시간가는 줄 모르고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항상 새해가 시작되면,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소망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글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니... 괜히 찻 썩스럽네요.

저의 2013년도 새해 소망 첫 번째는, 11년도에 4월에 결혼해서 바로 12년도 1월에 출산하느라 신혼도 없이 쌍둥이 육아 때문

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와이프와 분기에 한번 이상 여행가기, 그리고 가을에는 해외 여행 다녀오기입니다.

그 동안 애써준 와이프를 위해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의공장에서 안전한 환경속에서 아무 사고 없이, 양질의 제품을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회사 제 2공장인 전의 공장으로 명령을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접하는 합성 공장이라 부담이 크긴 하지만, 아무 사고 없이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소망은, 부모님, 처조모님, 와이프, 그리고 예쁜 쌍둥이들이 건강한 한 해를 보내는 것입니다.



2013년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무 탈 없이 모두모두 건강하게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네 번째 소망은 저와 회사 모두의 발전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분양 받은 아파트를 위해 대출금을 빨리 갚게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원익머트리얼즈 임직

원 및 원익 계열사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위닉스_국내영업팀 심규민 과장

“소망과 결심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을 맞이하며...

2012년 경기침체의 길고 어려웠던 터널을 지나 새로운 2013년 계사년의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스스로 또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2013년 신년, 개인적으로는 근무지 이동 등의 일신상의 변화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결국 어떤 각오로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결과도 도출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 생각합니다. 2012년 제가 들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누군가가 어떤 생각(결심)을 하든 그 시점에 그 순간이 늦은 것이 아닌 그 사람에게는 가장 빠른 시기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 시기가 늦었다 생각하여 시도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떠한 새로운 결과도 발전도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입니다. 크게는 사회, 회사가 있지만 그 근원이 되는 것이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은 외부의 활동에서 지치고 힘들 때 가족의 온기로 위로 받고 새로운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일화를 소개하자면, 제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 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하는 행동을 문득 보니 제가하는 습관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집안의 누군 가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와 “가화만사성”을 생각해 보면, “외유내강”과 일맥상통하는 말일 것입니다. 저는 2013년 스스로의 각오로 외유내강의 의미를 되새기려 합니다. 안으로는 가정을 지키며 올바른 중심이 될 수 있는 내가 되고 밖으로는 시간이 지난 후 후회하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의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내가 되려 합니다. 안으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모든 순간 도전과 시도를 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그에 따른 좋은 결과는 자연히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계사년을 맞이하여 원익인 모두의 소망과 결심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CHALLENGE



42 WONIK Core Value
자유 · 소통 · 행복
(신뢰 · 공정 · 투명)에서 (자유 · 소통 · 행복)으로 원익 핵심가치 바로 알기



46 Never Ending Change
일본 MK택시
친절로 일등 기업이 된 MK 택시 이야기

〈신뢰 · 공정 · 투명〉에서 〈자유 · 소통 · 행복〉으로
원익 핵심가치 바로 알기



自由

〈자유〉는 ‘고정관념이나 관행을 벗어나 열린 사고를 통해 남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실행하는 것’이며,

疏通

〈소통〉은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 표현을 기반으로 서로의 경험과 지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이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것’ 이고,

幸福

〈행복〉은 ‘구성원 모두가 ‘원익인’ 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신뢰를 기반으로 즐거운 일터를 만들며, 일을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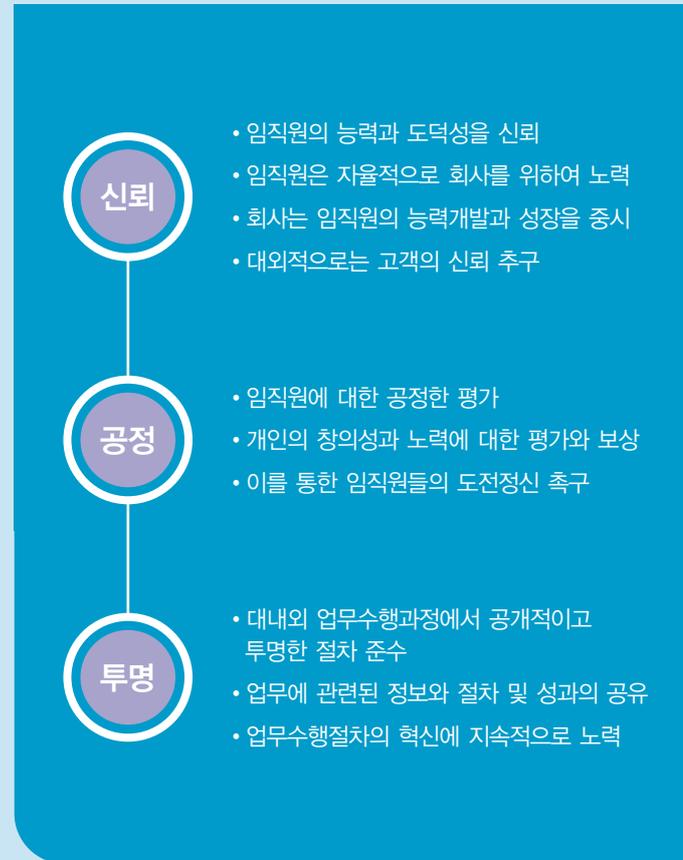
신뢰 · 공정 · 투명 으로 이룬 원익

1981년 10월, (주)원익의 전신인 원일통상을 설립하여 의료 및 조명기기를 수입·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30년간 원익은 다양한 사업분야에 도전하여 성공을 거두어 왔습니다.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를 포함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상황도 있었습디만, 우리 원익은 이를 극복하고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를 심화·발전시켜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자, 무역유통, 건설, 금융 등의 주요 산업에 진출하여 중견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신뢰, 공정, 투명을 바탕으로 건강한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임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예로부터 삼십의 나이를 '이립(而立)'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를 세우고 자립하는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좌절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룩한 성장과 결실 또한 '기초를 세우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건축으로 따지면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 원익을 지탱할 수 있었고, 원익의 구성원들에게 깊이 각인되었던 가치는 다름 아닌 <신뢰 · 공정 · 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인재중심과 고객중심을 바탕으로 자율경영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공정'은 임직원에게 대한 공정한 평가·보상을 통해 창의성을 존중하고 도전정신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투명'을 통해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고, 업무수행에서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혁신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원익은 지난 30년의 성장을 견인해 온 <신뢰 · 공정 · 투명>의 가치를 경영활동의 방편적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경영이념으로서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익이 이루어 온 성과가 우리 미래의 생존을 온전하게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그 변화는 새로운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내부동력으로서의 기업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가 원익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모든 원익인들이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 소통 · 행복 으로 이를 원익

새로운 미래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업문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전을 달성하는 주체가 결국 사람(구성원)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이 어떤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전략의 실행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비전의 달성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힘을 쏟음과 동시에 ‘조직문화 혁신’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원익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기업문화는 새롭게 정립된 <자유 · 소통 · 행복>의 핵심가치(core value)로 요약됩니다.

이는 우리가 꿈꾸는 기업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원익의 모든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신념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구성원들의 의식 및 행동을 규정하고 지도하며 모든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가치기준인 것입니다.

기업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만을 이야기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도/시스템만을 모방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선도하는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Southwest Airlines)은 “많은 경쟁기업들이 우리의 제도 · 시스템은 모방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직원의 태도는 모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업문화가 변화하려면 근본적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신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태도나 신념은 구성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assumption)이나 정서이며, 따라서 구성원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들의 행동과 의사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핵심가치(core value)는 이처럼 구성원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한 가치와 정서들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 · 명료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익의 핵심가치인 <자유 · 소통 · 행복>은 지난 30년간 우리들이 만들어 온 ‘신뢰, 공정, 투명’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원익의 모든 임직원이 공유하고 내면화 해야 하는 우리의 정서이자 가치이고, 철학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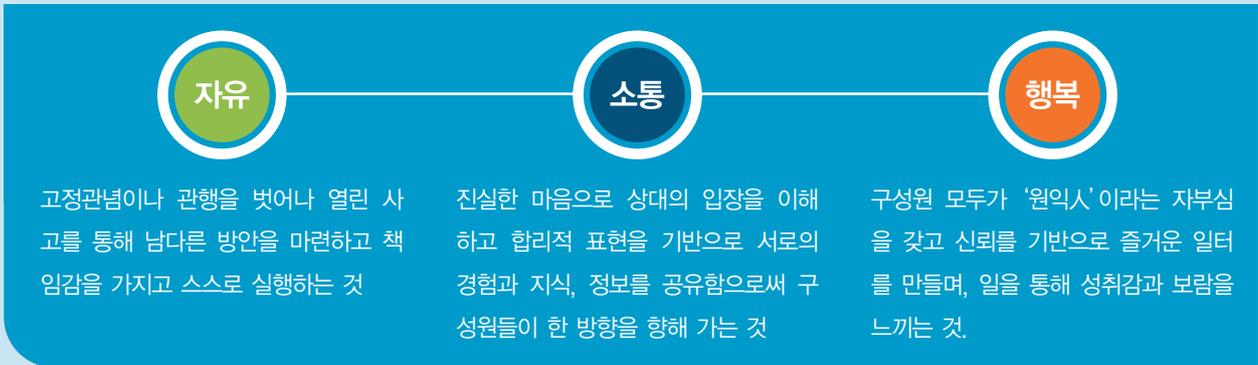
■ 원익 핵심가치의 컨셉트 (concept)

원익의 핵심가치는, 급변하는 환경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조직 비전이라는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구성원 서로간에 필요한 <소통>, 그리고, 개인과 조직의 상호이익(win-win)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행복>을 핵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 원익 핵심가치의 정의 - 자유·소통·행복

원익의 핵심가치인 <자유·소통·행복>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핵심가치와 구성요소

각 핵심가치는 아래와 같은 키워드를 하위의 구성요소로 갖고 있습니다.





친절로 일등 기업이 된 MK 택시 이야기

성공 기업으로 가는 MK 택시의 경영철학

어느 나라에서든 외국인이 기업을 경영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보수적인 일본의 옛 수도 교토에서 한국인이 설립한 회사가 성공을 거둔 것은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위 서

비스회사'인 MK 택시가 바로 그런 기업이다. 한국인 유봉식, 유태식 형제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라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MK 택시를 세계 1위 서비스 회사로 일으켰다.

경영철학을 관철하기 위해 규제와 싸우다

한국전쟁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주유소를 하며 모은 자금으로 1960년 택비 10대, 택시기사 24명으로 시작한 MK택시는 일본 택시 업계에서 '이단아'로 불린다. 타 업체들이 하지 않는 친절서비스와 가격파괴는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었다. 가격담합, 신규참여 제한 등의 규제에도 굴하지 않고 싸웠다. 자신의 경영철학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반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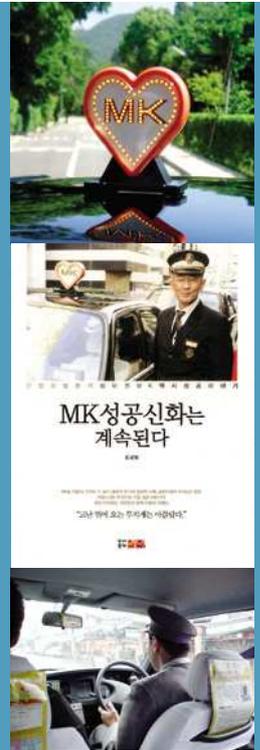
유봉식 회장은 "택시요금에는 친절과 서비스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했다. 고객이 MK 택시를 타면 기사는 "감사합니다", "오늘은 000 기사가 모시겠습니다", "행선지는 000가 맞습니까?", "잊으신 물건은 없습니까?" 라는 네 번의 인사를 받는다. 이 네 가지의 인사를 받지 못하면



고객은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여성 고객이 밤늦게 탑승할 경우 골목길을 라이트로 비춰주며 현관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지 확인, 소나기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는 서비스도 모두 고객을 위한 감동 서비스다. 유회장은 “택시 운전사는 파일럿과 같다. 우주보다 더 무겁고 큰 생명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또 “친절을

강조할수록 고객들의 요구는 더욱 증가한다. 고객을 감동시키는 지속적인 친절만이 기업이 살 길”이라고 강조해왔다.

또한 택시 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던 장애인들을 위해 사원교육에서 신체 장애인에게 택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일본 최초로 장애인을 먼저 승차시키며 장애인에 대한 요금 10%할인정책까지 실시하자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MK 택시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1978년에는 구급 택시를 발족시켜 모든 승무원에게 일본적 십자 구호원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



외부 고객 뿐 아니라 내부 고객도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

택시회사를 설립한 초기에는 기사들이 자주 결근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이유를 찾기 위해 유회장은 택시기사들의 가정을 방문했다. 기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집을 가진 가정이 없었고 단칸방에 여러 가족들이 함께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사들의 1사원 1주택 갖기를 지원했다. 78년에는 사원 76%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주택을 제공하자 이직률이 푹 떨어졌으며 직원들의 안정된 생활 덕택에 교통사고도 크게 줄었습니다. 사원 주택에 주차장을 만들어 출근하지 않고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도 높였다.

이뿐 아니라, MK 택시는 관리사원제도를 통해 노사 대표 각 5명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만들어 직원으로 하여금 이익 배당금을 자율적으



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입사 한지 6개월 이상, 무단결근이나 지각, 조퇴 없는 사원에 대하여 관리사원으로 선정하고 주식의 배당과 마찬가지로 이익의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이 관리사원이 근로자 측 5명의 경영위원을 뽑는데, 이들은 회사 측 직원 5명과 함께 경영위원회를 이끈다.

경영위원회에서는 회사의 경리 내용과 운전기사의 성적 등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너스의 액수와 관리사원에 대한 이익분배액을 결정하고 물품의 구입에 모든 의사결정 행한다. 이처럼 회사의 이익을 공개하고, 그것을 사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한편, 노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사원들에게도 책임감과 각성을 요구하는 참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원익인이 가야할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해부터 원익은 공정, 투명한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 가치를 세우고 공유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필요한 구성원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MK 택시의 서비스정신과 기업경영 철학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원익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글 김도웅

PASSION



50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원익아이피에스 한마음봉사단
평택 북부 복지센터 급식봉사



54 Zoom In
(주)원익아이피에스 축구동호회
WID FC (Wonik IPS Dream Football Club)



58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원익머트리얼즈 한우리봉사단
에버그린 어르신과 함께한 제주도 동행 이야기

작은 실천하나로부터 기분 좋은 행복은 시작된다

연말이면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 손 한 번만 뻗으면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선뜻 용기 내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뤄버리는 때가 많다. 봉사에 부담감에 대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알고 보면 지레 겁먹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럴 땐 스스로 부담되지 않는 선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한마음봉사단처럼 말이다.





지난 12월 20일, 평택북부 복지센터 4층에 위치한 식당에서는 아침부터 (주)원익아이피에스 한마음봉사단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 한마음봉사단이 할 일은 요리 및 급식 봉사. 오늘 봉사 참가자는 총 9명. 평소 10~12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편인데 연말에 바쁜 업무 스케줄이 겹치면서 참석인원이 예상보다 줄어든 것이다.

사우회장을 맡고 있는 박우정 과장은 “전 임직원이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나눔의 기업문화 정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누구나 처음 봉사활동 하는 사람도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무료급식 봉사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박 과장의 희망이다.



점심식사 시작인 12시에 맞춰 요리 준비에 돌입했다. 우선 요리재료를 다듬는 것으로 봉사는 시작되었다. 요리 복장으로 갈아입은 한마음봉사단은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오늘 요리는 배추된장국과 혼합잡곡밥, 떡갈비구이가 주 반찬이다. 부엌 한쪽에서는 김치 속에 들어갈 무채를 썰기가 한창이었다.

무채 썰기에 한창인 진주식 부장은 “김장할 때 무채를 많이 썰어 봤다”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진 부장은 “봉사를 할 때면 몸은 힘들어도 가슴 언저리, 마음 한 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면서 “사람들이 봉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격려도 하고 계기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생각을 전했다.

오늘 처음 봉사에 나온 정병주 부장은 “봉사를 통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얼굴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밝히면서 “진주식 부장님도 오늘 처음 뵈었는데 봉사에 나오지 않았으면 좀처럼 힘든 일”이라고 전했다. 정 부장은 “오늘 여러 어르신들을 보면서 새삼스럽지만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생각해볼 기회가 됐다”고 봉사 소감을 밝혔다.

최민석 사원은 오늘까지 두 번째 봉사 참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봉사 첫날이 복날이었는데 350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면서 상당히 힘들었다”고 말하며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할만하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봉사자체가 좋다고 밝힌 최 사원은 “이왕 봉사활동에 참여한 만큼 열심히 하고 가겠다”고 밝혔다. 연말에는 많은 인원이 다 함께 봉사활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올해로 2년차인 김 혁 사원도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업무가 바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인사파트 최병원 총무는 “봉사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봉사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최 총무는 “처음에는 안 익숙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지만 어렵지 않아서 금방 익숙해질 수 있다”면서

“봉사도 인생공부”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건강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2012년 한마음봉사단은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월 1회 이상 기본적인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 외 결손가정 및 독거노인 돕기, 사랑의 쌀 나누기 봉사, 삼계탕나누기, 1사1촌 자매결연 가정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또한 제도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기장판 30여개를 기부하기도 했다. 봉사활동에 드는 비용만 연간 800~1500만원에 이르지만 임직원의 사후회비로 지원하면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작은 도움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한마음봉사단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구세군 자선냄비의 최종 모금액은 51억 2000여만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1928년이래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 중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한다. 작은 도움 하나가 여럿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봉사도 다르지 않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글 김도웅 · 사진 조인기



동료와 함께 즐기는 축구 열정에 추운 겨울바람도 잊고 달린다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축구계의 프로들,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이들의 개인기는 일반인이

지난 12월 20일, 쌀쌀한 날씨에도 오산 죽미공원 다목적 운동장에는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적지 않았다. 오후 7시 한양기공과 삼성전자 LSI 개발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주)원익아이피에스 축구동호회 'WID FC (Wonik IPS Dreaan Football



Club' 회원들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다. 평일이고 날씨가 춥지만 오늘 참석인원은 경기를 치르기에 충분한 15명. 오늘은 인원이 부족한 한양기공과 삼성전자 LSI 개발팀 연합 대 원익아이피에스 간의 경기로 진행되었다.

도저히 흥내낼 수 없는 레벨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열정만은
축구를 즐기는 이들 모두에게 공평하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축구
동호회의 축구열정도 마찬가지다.



동호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연 대리는 “원정 경기를 포함해서 11경기에서 딱 1번밖에 패 하지 않았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하기가야 2010년 원익 30주년 체육대회에서 계열사인 (주)원익큐엔씨와 동등한 경기를 펼치며 대회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으니 열정만큼



람들과 함께 동호회를 결성하였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2000년 입사 때부터 축구를 함께해온 이동규 감사 또한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실력도 탄탄함을 자랑할 만도하다.

95년에 창단한 축구동호회는 올해까지 18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장수 동호회다. ATTO시절 초대 동호회장이었던 TGS 본부의 김병수 과장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





최고참급에 해당할 정도로 동호회와 함께 해왔다. 이 감사는 “축구라는 게 추우면 추우니까, 더우면 더우니까 하는 것 아니냐”라며 축구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추운 바람이 부는 12월에도 이들이 축구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7시 정각 시작된 경기는 전 후반 동안 팽팽한 공방을 거듭하다가 후반전에 한 골을 넣은 (주)원익아이피에스의 승리로 돌아갔다. 추운 날씨 탓에 손발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간 결과였다.

오늘까지 두 경기 짜라고 밝힌 새내기 이준영 사원은 “올해 5골만 넣겠다고 생각 중이다. 축구동호회에서 GDM 현장이 아닌 다른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좋다”면서 “축구를 좋아한다면 낮을 가



경기에 앞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푼다. 추운 겨울을 감안해 확실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벤치 한편에는 먹거리 준비가 한창이다. 이날도 추운 날씨를 감안해 홍무를 맡고 있는 전원준 대리가 손수 쫓은 꼬치 어묵을 육수와 함께 준비해왔다. 지나가는 동료들이 “손은 씻고 한 거냐?”, “직접 한 거 아니지?” 등 짓궂게 놀렸지만 얼굴에는 웃음기가 한 가득했다. 모두들 마냥 즐거운 분위기다.



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고 동호회 활동에 만족해했다.

지난 7월에 입사한 박석찬 사원은 “원래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그는 ‘파벨 네드베드’를 주저 없이 손꼽았다. ‘두 개 심장’으로 유명했던 그는 전 유벤투스의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선수다. 이번에 4번째 참가한다는 최강렬 사원은 “조기 축구도 해 봤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피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면서 “올해 목표는 통 크게 20-20 클럽 가입”이라며 웃음 지었다.

축구동호회가 운영이 항상 잘 됐던 것은 아니다. 회사합병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에 모임도 비정기적으로 들쭉날쭉하면서 13명 정도로 주춤했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41명에 이르는 회원 수를 자랑할 정도로 다시 자



리 잡았다.

이승연 동호회장은 “몇 해 전 시흥시청 배 직장인 축구대회에도 참가했는데 아쉽게도 1회전 탈락을 했다”면서 “2012년에는 일정을 놓쳐서 신청을 못했지만 올해는 평택 시청 배 경기에 출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축구동호회는 한 달에 2번 격주로 모임을 갖고 있다. 회사생활을 재밌게, 활기차게, 건강하게 하기 위한 선택은 ‘축구’라고 말하는 ‘WID with FC’ 회



원들은 다함께 즐기는 화목한 분위기를 자랑 1순위로 내세웠다.

축구동호회원들의 새해 소원은 날씨가 좀 풀렸을 때 “이문용 부회장님과 축구 한 게임 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범하면서도 소소한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질지 그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다는 이들의 축구 사랑과 열정만은 앞으로도 쪽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글 김도용 · 사진 조인기



에버그린 어르신과 함께한 제주도 동행 이야기

함께 느끼고 공유하면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돌아본다

(주)원익머트리얼즈 봉사동호회 한우리봉사단은 에버그린 사회복지센터의 한센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주도 관광에 나서는 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동안 변변한 외출도 잘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한우리봉사단의 계획에 (주)원익머트리얼즈도 힘을 보탤다. 한우리봉사단의 제주도 동행기를 들어보았다.



한우리봉사단은 에버그린 어르신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에는 고경현 총무와 이성우 대리를 포함하여 총 24명이 함께했다. 3일간의 일정을 잡았지만 어르신들의 연세와 건강 상태를 감안하며 움직여야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생각보다는 타이트한 일정이었다.



고경현 총무는 “출발할 때 거동이 그나마 괜찮은 분들 위주로 출발을 했지만 아무래도 평소보다 많이 걷게 되시니 힘드실 수밖에 없었다”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일정 조정을 했지만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이야



기했다. 이성우 대리도 “이동 시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코스가 많았다”면서 “버스가 멈추면 가장 먼저 매표소를 통해 휠체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리는 “추억의 박물관이나 서커스 월드, 선녀와 나무꾼 등 어르신들이 좋아할만한 제주도 관광 코스를 선정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면서 “특히 선녀와 나무꾼을 보신 할머니들께서 많이 공감을 하시는 눈치였다”고 전했다.



다. 고 총무는 서커스 월드를 손꼽으면서 “어린시절의 아련한 향수를 불러와서 인지 다른 때보다 더 좋아해주셨다”고 만족스럽게 이야기했다. 이밖에도 트릭아트나 수목원테마파크, 국립박물관 등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은 어



린이아마냥 즐거워하셨다고 두 사람은 전해주었다.

고경현 총무는 “관광을 마치고 돌아와서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직접제기를 만들고 규칙을 정해서 차는 일명 ‘엽기 제기차기’를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박장대소를 하시며 즐거워하셨다”면서 “여행 소감을 적을 때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다”고 전했다.

서재원 한우리봉사단장은 “다사다난했던 한해였고 한우리봉사단의 참석률도 저조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





억에 남는 봉사활동을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보람찼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재원 봉사단장은 "내년에도 좋은 인연이 잘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고경현 총무는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동과 걷기' 였다"며 힘겨웠던 순간을 귀띔해주었다. 그는 "휠체어가 모자라거나 몸이 안 좋으면 버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관광지에 이런 부분을 배려하는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관람시간도 길어지고



매번 끝에 앓을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 많았다"고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그래도 미술쇼 공연장에서는 주최 측의 배려로 가장 앞자리에 앓을 수 있어서 어르신들도 편하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봉사를 할때마다 항상 배워간다는 고경현 총무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봉사자 한 사람이 두 명을 보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이야기해주었다. 이야기할 시간도 유사 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기에도





적당하다는 것이다.

한우리봉사단은 12월에 송년파티를 열 계획이었으나 폭설로 인해 계획이 취소되었다. 대신 21일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해 선택한 '홍삼'을 증정할 계획에 있다. 2013년

복지협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한우리 봉사단의 꾸준한 활동이 가져온 결과다. 한우리봉사단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함께 앉아서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봉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한다. 물질적

인 봉사를 넘어 함께하는 마음의 중요함을 생각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봉사라고 생각하는 한우리 봉사단의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글 김도웅



에도 한우리봉사단은 만들기 공예를 직접 배워서 에버그린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등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생각 중이다. 12월초 (주)원익머트리얼즈 이준열 사장은 2012년 전국 한sein 대회에서 한빛



2013년 경제의 화두는 환율전쟁

미, 일 등 경비부양책 앞 다투어 발표
원高 방향성 꾸준히 지속될 듯

미국의 양적완화 발표 이후 일본도 대규모의 경제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환율전쟁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 속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미 1050선을 위협받고 있다. 우리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새해 한국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원화의 절상률은 세계 주요 통화 중 가장 높은 반면 미국, 일본, 중국의 통화 가치는 원화에 비해 떨어지는 중이다.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계속 절상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국가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요 수출산업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지난 11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20조2000억엔(약 240조 원)의 경기부양 대책을 결정한 데 이어 22일 일본은행은 물가목표를 1%에서 2%로 높일 전망이다. 일본이 대량으로 엔화를 풀기 시작하면서 엔화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2.75%로 석 달째 동결했다. 원화 강세 위험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은 흘러들어오는데 유입을 막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다. 가파른 원고 현상에 수출기업은 이미 비상상황이고 중소기업들은 더욱 환율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 축소는 말할 것도 없고 적자로 전환하는 기업까지 나올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환-달러 환율 1100원선이 무너지면서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경고는 끊이지 않고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라 부정적인 예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작년 성장률은 2.1%로 추락했고 올해도 2.8%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정책적으로 대처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어 보인다.

미국의 재정절벽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부채 한도 상한과 관련해서도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론은 시기의 문제에 가깝다. 다만 미국 경제상황이 빠르게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기는 힘들고, 유럽상황도 큰 위기를 넘긴 상태에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어에도 당분간 원高 추세는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중국의 부양책에 따른 상대적 손해가 예상된다는 점 정도다.

물가 상승, 경기 회복 과제
대외적 변수에 민감한 한 해 될 듯

원화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선이 끝나고 식료품 업계와 전기, 가스요금 먹거리 가격 인상안이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되고 있다. 전기요금도 기습적으로 인상되는 등 공공재의 인상도 가계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새정부 인수위가 공공요금에 대해 물가 상승률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지난 8년간 연평균 공공요금 인상률은 가스요금 9.2%, 전기요금 3.9%, 시외버스요금 3.3%, 철도요금 2.1% 등이었으며 특히 전기요금은 오는 14일부터 또 4% 오르고 광역상수도, 댐용수요금과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도 최근 인상 방침이 발표됐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5%, 내년 2.8%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는 물가안정 목표범위는 연평균 2.5~3.5%다. 인수위는 이 범위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나해부터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가 이어져왔고 이에 대해 아직까지 경기 침체를 벗어날만한 뾰족한 방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이 올해 한국경제가

상저하고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은 주변 경쟁국가들의 부양책에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면서 환율로 인한 충격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함께 병행하면서 올 하반기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원익인도 이 같은 대외적인 변수들의 흐름을 읽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주식 투자의 경우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겠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외인자본의 갑작스러운 이탈도 항상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환율압력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를 이용한 대출도 생각해볼지 하나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상환계획을 세우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반기에는 변동성이 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안정과 투자를 적절히 조합한 자산관리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

글 김도웅



겨울 풍경과 만나는 클래식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날짜 2012.2.28(목) 오후8시
2013.3.1(금) 오후5시

장 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티켓가격 R석 35만원 · S석 25만원
A석 18만원 · B석 12만원 · C석 7만원

문 의 02-585-4055

홈페이지 <http://www.sac.or.kr/>

런던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2012년에 이어 또 한 번 서울 예술의 전당을 찾는다. 그라모폰지 선정 세계 1위 오케스트라 콘서트하바우를 27년간 감독했던 세기의 명장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런던 심포니와 함께 내한한다.

다른 지휘자들과 달리 청중이 아닌 음악 자체만을 위해 지휘하는 거장으로 알려진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이끄는 런던 심포니의 이번 공연은 지휘계 세계 최고의 명장과 유연한 런던 심포니의 만남에서 보다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사운드를 관객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브루크너를 가장 잘 해석하기로 평가받는 하이팅크의 이번 공연에는 둘째 날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이 예정되어 있어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정적이기보다 악보에 충실한 곡 해석을 보여주는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와 유연함이 돋보이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만남이 가져올 환상적인 사운드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이틀 전



26일에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런던시티 스트링과 르벳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연주에서 선보일 프로그램에서 고전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시대별 클래식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하이든 현악 4중주 5번 <종달새>, 베버른 5악장으로 구성된 현악 4중주 작품, 드보르작 현악 4중주 <아메리카>,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 8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드보르작의 <아메리카>는 드보르작의 13개의 현악4중주 작품 중에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으며, <신세계 교향곡>과 같은 시기에 작곡되어 이에 못지않은 구성으로 작품성을 평가 받고 있다.

실내악은 연주자 개인의 기량 뿐 아니라 함께하는 연주자간의 하모니가 요구되는 장르이다. 서울에서 만나는 단 한 번의 시간, 2월 26일 밤에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하모니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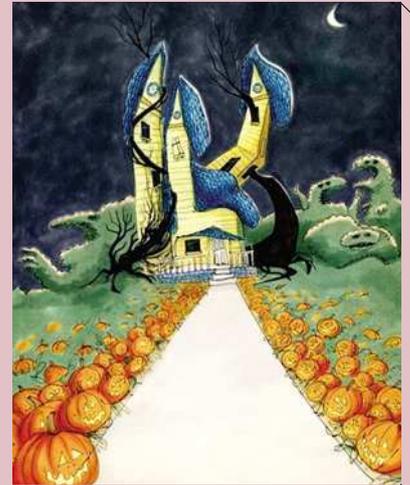
2012~2013 겨울 기괴한 상상력의 대명사 팀 버튼(Tim Burton)의 전시회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다. 팀 버튼 전은 영화 <가위손> 과 <배트맨>,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을 연출한 팀 버튼 감독의 발자취를 담아낸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팀 버튼의 유년시절 습작부터 회화, 데생, 사진,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만든 스톱모션 피규어까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보관해 온 작품에 이르기까지 총 7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5년간 발표된 '팀 버튼'의 영화들은 그 스타일이 너무 독특해서 '버튼 양식(Burtonesque)'이라 일컬어진다. 팀 버튼의 작품 세계는 크게 성장기, 성숙기, 전성기로 구분된다. 외롭고 지루한 어린 시절을 잡지에서 수집한 만화와 그림 스케치로 달랐다. 고등학교 재학시절에는 아마추어 영상 필름을 만들기도 했으며 성장기 섹션에 전시되어 있다. 성숙기인 18세 때 월트 디즈니가 만든 캘리포니아예술학교(Cal Arts 칼 아트)에 입학한 팀 버튼은 이시기에 동화적이면서도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탄생시켰다. 월트 디즈니에 입사했지만 디즈니의 정서와 맞지 않아 퇴사하기도 했지만 이후 그만의 독특한 작품을 완성하는 기초작들이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전성기는 팀 버튼이 할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감독이자 위대한 예술가의 반열에 올라선 시기다. <가위손>, <배트맨>, <크리스마스의 악몽>,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 명작이 탄생하는 데 기초가 되었던 스케치부터 캐릭터 모형들, 실제 영화 속에 등장한 소품 등을 볼 수 있다. 작품의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영화감독일 뿐만 아니라 제작자, 예술가, 사진가, 작가, 콜렉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가로서의 '팀 버튼'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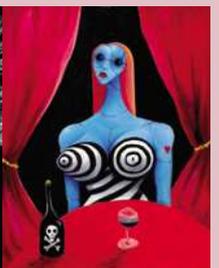
2009년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시작된 '팀 버튼 전'은 당시 80여 만 명이 관람해 미술관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관람객을 기록했으며, 이후 뉴욕, 파리 등 전 세계 5개 도시를 거쳤고, 이번 서울 전시를 마지막으로 세계투어를 마칠 예정이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기괴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녹아있는 그의 세계를 직접 관람 느껴보자.



전시기간 2012.12.12일(수)~2013.4.14일(일)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시간 화~금 : 오전10시~오후8시
 토·일·공휴일 : 오전10시~오후7시 (월요일 휴관)
 ※유지엄데이 운영 : 매월 2회 (첫째, 셋째주 화요일) 밤 10시까지 연장 개관
 입장요금 일반(만19세~64세) : 12,000원
 청소년(만13세~18세) : 10,000원어린이 (만7세~12세) : 8,000원
 문의 02-325-1077
 홈페이지 <http://www.superseries.kr/4072>
<http://sema.seoul.go.kr/>

팀 버튼이 창조한 新世界, 팀 버튼 전

독특하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유명한 영화감독 팀 버튼 감독의 전시회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시작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팀 버튼 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의 1/3 정도. 그런데 일정량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부족한 수면시간이 우리 몸에 은행 빚처럼 누적된다. 이를 수면빚(sleep debt)이라고 한다. 수면빚이 누적 되어 점점 부채가 커지면 우리 몸은 '건강파산' 상태에 도달하기도 한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수면빚 청산 팁을 몇 가지 알아보자.

내 건강을 위한 건강한 수면 상식

수면빚 갠기 STEP 1

광량을 높여라



수면장애의 첫 번째 원인은 햇빛 결핍이다. 전구가 발명된 후 인간의 수면시간은 평균 10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숙면을 취하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더 적은 편이다.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 짧은 시간이라도 햇빛을 쬐어준다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가 쉽다. 낮 동안 햇빛을 보기 어렵다면 실내등의 광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

수면빚 갠기 STEP 2

운동으로 단잠을

수면 연구에 따르면 한 주에 150분의 운동 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65% 향상되는 결과

를 보였다. 단기간에 과격한 운동 보다는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처럼 짧더라도 꾸준한 운동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에 운동을 마치는 것이 건강한 수면에 좋다. 각성 상태의 뇌가 회복될 때까지는 최대 4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수면빚 갠기 STEP 3

숙면을 돕는 음식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비타민B6와 마그네슘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바나나, 키위가 대표적이다. 최면효과가 있는 상추, 신경안정효과가 있는 대추도 좋다. 커피, 홍차, 콜라 등 카페인 함유된 음료보다는 진정효과가 있는 동굴레차가 숙면에 도움이 된다.



수면빚 갠기 STEP 4

명상과 낮잠으로 빛 줄이기

눈을 감고 잠깐의 명상을 하는 것으로도 뇌는 외부의 자극과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휴식을 취한다. 짧은 낮잠은 잠이 부족한 직장인에게 낮 동안 활력을 준다. 야간의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낮잠은 2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실 수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결국 실천의 문제다. 힘차게 시작한 계사년을 맞이해, 올 한해는 흡연과 음주를 삼가고 여기에 수면빚을 줄이는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본 호 가 나 오 기 까 지
함 께 하 신 원 익 인
여 러 분 께 감 사 드 립 니 다

(주)원익 고건호
 이태을
 박종한
 성열석

(주)원익큐엔씨 도연수
 배광복
 세정사업부

신원종합개발 (주) 현승훈
 최정미

(주)원익아이피에스 문인준
 한미음 봉사단
 축구동호회

(주)원익머트리얼즈 송민희
 김만식
 한우리 봉사단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차은주

(주)위닉스 안희태
 심규민

기획조정실 김동철
 윤지영



2013 WINTER
V O L . 33

세 계 초 우 량
기 업 을 향 해 가 는
원 익 , 원 익 인 이
함 께 하 는 사 보

8월 31일
모델하우스 오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아오신
전주 대표 VIP 176분께만 바칩니다
서부신시가지 프레스티지 아파트 -
신원 아침도시 펜트176

전주의 새로운 중심, 서부신시가지에 33층 초고층 아파트 펜트176이 옵니다.
서부신시가지가 주는 프리미엄에 전주에서 처음 만나는 멤버십 아파트 서비스까지!
이제 신원 아침도시 펜트176에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빛나는 삶을 누리십시오.



서부신시가지 프리미엄의 중심 - 신원 아침도시 펜트176

- 압도적 미래가치** 전북도청, KBS, 경찰청, 전주우체국 등 10여개의 관공서와 다양한 산업시설들이 위치하여 최고의 미래가치
- 최고의 자연환경** 단지 앞으로 삼천천이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악산을 조망할 수 있으며 문학대공원, 마전숲 등이 인접
- 편리한 교통환경** 서전주IC, 전주IC, 1번 국도, 순환도로 등 편리한 교통으로 전주시 도심은 물론 인근도시로의 접근까지 용이
- 완벽한 생활인프라** 롯데마트, 하이마트, 병·의원, 수영장 등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을 가까이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생활환경

부양의 **228-9449**

총 176세대 84/106m²

시행/시공 **신원종합개발(주)**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 사진 등은 소액의 이미지를 용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은 시공 및 허가상의 문제로 인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으로 문의하십시오.